

사설

불교 대사회 활동의 방향

불교가 개인의 삶과 공동체적인 삶의 터전을 밝고 맑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종교라는 것이 불교인들만의 믿음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불자들을 위해서 그렇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런 행복한 사람들을 늘려 나가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구체적 표현이어야 한다.

한 개인의 행복이 추상적 관념적 세계의 공허한 것이 되지 않고, 또 그것이 현실적인 불국토 실현으로 이어 지려면 불교 신앙은 당연히 같은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연대적인 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언어로 오늘의 문제를 말하며, 오늘의 몸짓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적 운동이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불교는 당연히 사회 운동, 시민운동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한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요구에 직면해 왔으면서도 불교는 그 동안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어 개인의 안심입명을 추구하는 소송적 차원에 머물거나, 종교적 바탕을 잃고 운동 논리 속에 매몰된 소수의 운동가들이 불교 시민운동을 대변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이러한 양상이 극복 되려면 우선 스님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님들의 의식이 가장 구시대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계기에 불교환경교육원 유정길 사무국장이 조계종 서울·경기·강원 지역 분말사 주지연수회에서 불교 시민운동이 나아가야 할 틀을 제시한 것은 불교의 밝은 앞날을 위해 매우 주목되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지스님들의 연수에서 이런 발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스님들 자신의 의식 변화 요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불교가 현실사회의 구체적인 괴로움을 견어내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또 이웃종교보다도 뛰어난 종교적 바탕을 지니고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운동의 영역으로 통일 운동, 문화운동 등 11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는 것도 불교 시민운동의 무한한 가능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불교 시민운동이 활성화되는 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스님들의 변화의 욕구에 이러한 발제가 기폭제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불교 시민운동의 중심이 되고 보살행이 시민운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불교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불교문화 상품화의 조건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불교계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큰 절들은 정부의 후원에 힘입어 성보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영산재 등과 같은 일반인들을 위한 불사도 개최되고 있다. 불교문화재의 상품화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민간단체들(www.jikicorea.com, www.jikji.org)도 등장하고 있으며, 관련 예술 공연들도 기획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활동들의 한가지 공통적인 한계성은 이벤트성 행사, 건물 짓기, 전시회 개최, 관련 상품 개발 등의 명색(名色) 강조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등에 대한 새로운 문화 전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 세계인의 축제가 된 2002년 월드컵이 목전에 다가왔다.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불교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내용의 충실성을 기하는 것이다. 번역의 경우 단순한 직역은 큰 의미가 없다. 해석과 분석이 가해져야 한다. 이는 곧 탄탄한 학문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벤트성 행사도 이러한 시각 위에서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다. 일차적으로 누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종단의 분야별 권위자들과 불교학 전문가들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학문적 체계성을 구비한 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국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의 둔황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에는 옥스퍼드, 런던, 케임브리지 대학교 등의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 다 하겠다. 물적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인재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 16세기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은 당시의 인재 선택 기준이 "누구를 아느냐"에 있음을 개탄하였다. 현대에서도 미국 아메리칸 대학교의 개리 위버 교수는 "무엇을 하는가"(What they do)와 "어디에 속하는가"(Where they are)라는 기준으로 선 후진국을 구분하면서, 선진국일수록 전자를 강조함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합리적인 연구비 지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등이 이루어질 때, 불교 유물·유적의 문화상품화 전략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열린마당

'지리산담 백지화' 범불교 토론회



지리산담 백지화 토론회 장면. 왼쪽부터 해강스님, 유정길 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석봉 집행위원장.

'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원회'는 5월30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지리산담 건설 계획 백지화와 지리산 살리기'를 위한 범불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봉 범영남권 낙동강유역 담반대투쟁위 집행위원장이 '지리산담의 진행경과와 문제점'을, 해강스님(지리산살리기 실상사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지리산담 문제에 대한 범불교적인 대응방안'을 발제하고, 영남 불교신문사 사장 스님, 최연 조계종중앙신도회 사무총장, 이창구 함양담대책위 집행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지리산담 건설 계획은 단지 '물 문제'를 넘어서는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정치·경제·문화·생태계·산업구조·종교 등 총체적인 '생활의 문제'라면서 '항후 지리산담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나아가갈 수 있도록 범불교, 범국민적인 시안으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제문 요지.

"200여 사찰-유물 곳곳에 산재"

해강(지리산 살리기 실상사 집행위원장)



지리산은 민족의 발원지인 백두산의 맥이 흘러 머무는 민족의 성산이자, 반만년 부침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의 고향이다. 천년이 넘도록 이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 보호해 온 사람들이 곳곳에 자리해 있다.

지리산은 산 밖의 생명들이 지치고 힘들 때, 버림받고 서러울 때, 모든 이들을 말없이 보듬어 달래주는 어머니이다. 불우리, 골 골마다 문수보살의 중생제도 서원이 서려있는 화엄도량이다. 대지문수사리보살(大智文殊舍利菩薩)에서 산 이름이 기원한 지리산에는 화엄근도도량인 화엄사, 한국 법배의 원원인 쌍계사, 가야불교 인도 직접전래 설이 전해오는 칠불암, 벽속지엄소님의 수행도량인 벽송사 등 유서깊은 200여 개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특히 7점의 국보와 41점의 보물, 51점의 지방문화재, 12곳의 중요사적지 등 유적과 유물이 곳곳에 산재한 불교문화의 보고이다.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지리산에는 우리나라 생물종의 30%가 서식하고 있다. 식물 744종·포유류 39종·

조류 87종·양서류 92종·파충류 12종·어류 27종·곤충류 139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울벚나무·사향나무·하늘다람쥐·반달가슴곰·수달 등 천연기념물과 세계적 희귀동물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지리산 기슭에 대규모 담을 만들 경우 종산리 계곡과 달궁계곡 등 수려한 계곡이 자취를 감추는 것은 물론 안개 일수의 증가와 일조량 감소 등 이상기후를 초래해 지리산 생태계가 크게 파괴 될 것이다.

지금도 지리산은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하게 건설된 횡단도로는 생태계를 단절시켰고, 계곡마다 자리잡은 위락단지는 하류지역 하천수질의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강댐, 합천댐, 하동댐 등 지리산 양수댐 2기가 이미 건설되었거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3개의 대형 식수댐이 건설되면 지리산 생태계는 회복불능의 상황에 처할 것이다.

지리산은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문화와 역사의 현장이다. 더 이상 개발의 논리로 환경과 문화를 정부가 앞장서 파괴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된다.

"환경-생태-문화 파괴적 행정"

김석봉(낙동강유역 담반대 집행위원장)



지리산담 건설 계획은 낙동강의 심각한 오염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96년 발표된 대구 위천공단 건설 계획은 낙동강의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부산·경남지역민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정부가 급조한 대책이 남강상류(낙동강지류 중 하나, 지리산유역) 지역의 청정수원 개발이다. 지리산의 맑은 물로 낙동강의 오염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리산담 건설계획은 함양과 산청, 진주를 지나 낙동강 하류로 흘러드는 자연스런 흐름을 단절시키게 된다. 이는 청정원 남강상류를 오염시키고 남강중류의 수량을 극소화시켜, 남강하류(낙동강 본류)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양질의 지리산 계곡수에 의해 그나마 3급수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남강담 수질이 지리산 식수댐에 의해 폐수로 전락, 남강담을 상수원으로 삼고 있는 100만 서부·경남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다.

낙동강은 풍부한 수량을 갖고 있다. 정부는 낙동강 중류의 집중오염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상류지역의 청정수를 낙동강 본류까지 흘러보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낙동강의 수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포기하고, 지리산 담에 집착한다면, 낙동강도 포기하고 지리산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리산담 건설 계획은 지리산의 생태적·사회·역사적·문화적 가치,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성지로서 기능했던 지리산의 민족통합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정부는 지리산담 문제를 계기로 환경부(수질 관리), 수자원공사(수량 관리), 기초자치단체(상·하수도 관리)가 따로 달고 있는 수자원을 일원화해 통합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수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량확보 위주의 공급확대정책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밖에 식수용·잡수용 수도꼭지를 구분하는 중수도시설의 도입, 노후상수관 교체, 물절약 국민운동 등을 장·단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선방스님들은 교리지식이 없다"
"선방에서 나와 과연 대중교화 할 수 있을까"
5월 29일 한 토론회에서 강연에 관계된 스님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선원도 기본교육을 접감받는 교학위주의 승가고시에서 예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자나 언어를 버리고 화두와 하나되기 위해 엄격히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교학위주의 시험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문제가 크다. 선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진다.

이 같은 발상은 선이 인류정신문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외면한 것은 물론 출가 수행자의 본분을 망각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물론 종단의 교육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김원우 (취재1부 기자)

선원의 교학위주 시험
수행자가 되기보다는 성직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출가자의 90%, 다른 종단의 경우 거의 99%가 사관을 지향하는 현실에서 조계종 기초선원의 출범은 선정을 통한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스님들에 대한 배려였다. 특히 근래 종단이 분류로 시끄러울 때마다 출가자의 수행부족에서 원인을 찾으며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기초선원이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 자리에서 나온 지적처럼 교학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초선원에 입방하고, 포교는 하지 않은 채 선방에서 정진하는 것을 무위도식처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다. 스님들이 불멸주야 용맹정진으로 선방에서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는 모습 그 자체가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길이 되고 불교를 일으켜 세우는 요인임을 간파해서는 안될 것이다.

세계불교 초대법왕·대한불교 일봉선교종·창종주 일봉존자 서박사 경보 대종사 탄신87주기·열반3주기

제 4회 일봉 대제

귀의 삼보하시옵고,
춘초는 연년록이라 올해도 무정한 일세는 말없이 푸르렀지만 스승님께서 가신지 어언 4년이 훌쩍 벌써 큰스님의 4주기가 닳아 왔습니다.
저희 종도와 문도들이 올해는 큰스님께서 평소애 주석에 하시던 서울 일봉선원에서 아래와 같이 4주기 추모법회를 모시기로 하였사오니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와 큰 스님의 공덕을 함께 기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일시 : 불기 2544(2000)년 6월 10일(음5월 9일) 오후2시
- ◆ 장소 : 서울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일봉선원 대법당
- ◆ 문의 : TEL 02)394-9468 FAX 02)395-9468

- 주직 : 대한불교 일봉선교종
- 주관 : 일봉 전국문도회
- 후원 : 일봉장학회, UN뉴스, 일봉신문

2544 禪의 향연 2000

대둔사 여름 참선 수련회 모집안내

번뇌를 벗어남은 보통일이 아니니 고삿끝을 꼭 잡고 한 바탕 일을 치루라
매서운 추위가 배속에 사무치지 않으면 어떻게 대화 향기 코를 찌르랴.
— 황벽선사 —

일 정

구분	참수	기간	정원	수련비	대상
일반부	1차	7월10일-14일(4박5일)	남자 20명 여자 20명	70,000원	19세-55세
	2차	7월17일-21일(4박5일)	남자 20명 여자 20명	70,000원	19세-55세
	3차	8월 7일-13일(6박7일)	남 20명 여자 20명	90,000원	19-55세(유경험자)
청소년	1차	8월 1일- 4일(3박4일)	남,여 100명	30,000원	중, 고등부 학생
어린이	1차	7월25일-7월27일(2박3일)	남,여 200명	20,000원	초등학생
	2차	7월27일-7월29일(2박3일)	남,여 200명	20,000원	초등학생

자원봉사자 — 수련경험자로서 매 참수마다 5명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1,2,3차 수련회는 참선 위주로 진행합니다.

모 집 요 강

- A4용지에 우측 양식대로 본인이 기재한 참가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와 빠른우표가 첨부된 반신용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팩스접수는 받지 않음)
- 정원관계로 신청자 중에서 수련원 소정의 심사로 선발합니다.
- 기계사항을 빠뜨리거나 부실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마감일은 6월30일(금) 우체국 소인까지입니다. (일반인에 한함)
- 7월5일(수)까지 참가자부를 개별통지해 드립니다. (일반인에 한함)
- 수련기간중 조식108배, 참선 등을 수행하므로 심장병, 관절염, 디스크 등의 질병이 있으면 수련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디.
- 보낼곳 : (우536-810)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대둔사(대흥사)수련원
- 문의처 : 종무소 ☎(0634)534-5502,5503 팩스 (0634)535-5357 온라인 예금주 — 대흥사 무 계 국 502716-0019095-11 국민은행 562-01-0039-629

※청소년과 어린이는 신청서 없이 전화로 신청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둔사(대흥사) 주 지 보 선
제 22 교구본사 수련원장 법 인